북스

Books

우리시대 대표작가 9인이 들려준 삶과 사랑,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

석양을 등에 지고…

박완서·윤후명 등 지음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딸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어머니,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던 여인. 홀로 여행을 떠났다가 한 여인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남자. 이들의 남다른 추억과 기억이 훗날 소설가 박완서와 박성원을 키워냈다.

신간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는 박완서, 이동하, 윤후명, 김채원, 양귀자, 최수철, 김인숙, 박성원, 조경란 등 소설가 9인의 자전소설집이다. 월간 '현대문학'이 창간 55주년을 기념해 기획, 출간했다.

무엇보다도 소설가들의 감성을 키운 것은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상처였다.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박완서(79)씨는 표제작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에서 남편과 외아들을 3개월 간격으로 보내야 했던 아픔을 들려준다. 가족을 잃은 그녀의 슬픔은 여러 책에서 이미 다뤄졌지만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여전히 아프게 읽힌다.

박씨는 이탈리아 여행지에서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다가 문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떠난 아들을 떠올리면서 "목 놓아 울고 싶은 격정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한다.

한동안 글을 쓰지 않았던 양귀자(55)씨는 '단절을 잇다'를 통해 셋째 오빠의 죽음에 대해 털어놓는다.

윤후명

조경란

박완서

고교시절까지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오빠는 미대에 들어갔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한다. 급기야 무섭게 달려오는 기차 앞으로 뛰어들어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다.

양씨는 "굴욕과 배신과 분노로 점철된 시간을 견디는 것이 곧 '예술적'인간의 길임을 알았을 것이다. 천재의 자리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빠가 알았어야 했다. 운명에 투신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아픔을 다독였다.

윤후명(64)씨는 '모래의 시'에서 암에 걸려 임종을 맞은 모친이 "어떡하니…"를 연발하던 안타까운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를 살려낸 손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많은 말들이 그 손끝에서 묻어 나왔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 보니 실로 오랜만에 잡아보는 손이었다"고 썼다.

김채원(64)씨는 시적인 문체로 풀어낸 '등 뒤의 세상'을 통해 "살아오는 동안 누구의 가슴속에도 들어가 남지 못했으며 누구도 나의 가슴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다던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했다.

또 김인숙(47)씨는 '해삼의 맛'에서 대학시절 세들어 살던 집 부부의 기막힌 삶의 비운을 들려주고, 박성원(41)씨는 여행에 빠져들었던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아주 긴 여행의 시작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어느 날 낯선 곳'에 담았다.

이 밖에도 이동하(68), 최수철(52), 조경란(41)씨는 각각 '감나무가 있는 풍경' '페스트에 걸린 남자' '봉천동의 유령' 등을 통해 소설가로 살아왔던 과거의 잔상을 보여준다. 〈현대문학·1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혼의 시인' 구상 문학적 업적 총망라

'영혼의 시인'으로 불렸던 구상(1919~2004) 시인의 문학적·철학적 업적을 총망라한 구상문학총서가 10권으로 완간됐다.

구상문학총서는 시인 생전인 2001년 처음 기획돼 2002년 자전 시문집인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가 첫 권으로 나왔다. 이어 단시를 모은 시 전집 '오늘 속의 영원, 영원 속의 오늘'과 연작시 전집 '개똥밭'이 2~3권으로 출간돼 시 정리를 마쳤으며 2004년 시인이 세상을 뜬 후에도 시인의 희곡과 시나리오, 시론집, 에세이, 사회비평문 등이 차례로 묶었다.

마지막 10권 '삶의 보람과 기쁨'에는 시인의 동화와 서간문, 에세이 등이 수록됐다.

〈홍성사·전10권 18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과식의 종말

데이비드 A .케슬러

탐욕스러운 식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데이비드 A. 케슬러가 쓴 '과식의 종말'은 현대인들의 과식 습관을 파헤치고 이를 식품업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과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폭넓은 분석과 조사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썼다.

책의 탄생 배경도 이채롭다. 저자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한 방청객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과식 행동에 대한 한탄하는 것을 보고 집필을 시작했다.

저자는 과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 유혹을

설탕·지방·소금이 과식 중독 주범

왜 뿌리치지 못하는지를 알고자 연구하고 분석하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과식 중독과 비만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설탕, 지방, 소금을 지목한다. 고당분·고지방 음식이 욕구와 충동을 강하게 하며, 양이 많을수록 또 다양한 재료로 감각을 더한 음식이 과식 욕구를 자극한다고 말한다.

이런 인간의 식욕과 더불어 식품산업은 사람들이 더 자주 음식을 탐닉하도록 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저자는 레스토랑에서 새로 출시되는 음식 대부분은 설탕, 지방, 소금이 고기나 채소, 감자, 빵과 같은 핵심 재료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 위에 쌓여 있는 식이라고 말한다.

스타벅스의 화이트 초콜릿 모카 프라푸치노는 설탕과 지방과 소금의 혼합물을 희석한 커피이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블루밍 어니언은 지방과 설탕과 소금이 합쳐진 맛을 낸다.

그렇다면, 거대 식품업계가 가세한 설탕과 지방, 소금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맞서 과식과 비만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주어진 상황의 위험을 깨닫는 '인식', 습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쟁 행동', 옛날 생각들과 경쟁해 그것을 억누르는 생각을 만드는 '경쟁 생각', 음식 단서를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사람들의 '지지' 등 4가지 요소가 과식 습관을 바꾸는 기본 요소라고 말한다. 나아가 저자는 음식점의 성분 분석표 부착, 공교육 캠페인, 마케팅 규제 등 과식의 종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문예출판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리큐에게 물어라=일본 최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추앙받는 인물 센 리큐(1522~1591)의 베일에 가려진 삶의 비밀을 파헤친 야마모토 겐이치의 역사소설이다. 리큐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에서 출발해 그렇게 된 경위, 최고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대립, 젊은 날의 사건들을 하나씩 밝혀낸다. 〈문학동네·1만3천원〉

▲2020 세계경제의 라이벌=이코노미스트 편집장 빌 에모트가 세계 경제 라이벌로 부상할 중국과 인도, 일본의 패권 다툼을 다뤘다. 저자는 중국을 미국을 위협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단일요소로 꼽았으며 인도는 사회적,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나라로, 일본은 영향력이 약해진 위태로운 노장 강국이라고 분석했다. 〈랜덤하우스·2만2천원〉

▲재와 빨강=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편혜영(38)씨의 첫 장편소설.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쥐를 잡는 능력을 인정받아 파견근무를 가게 된 곳에서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쫓기다, 쥐를 잡는 임시방역원으로 일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과 밀도 높은 문장으로 현대문명의 이면을 치밀하게 파헤친다. 〈창비·1만원〉

▲살아 있음이 희망이다=MBC 시사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 있는 '호주판 오체불만족'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 팔과 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닉 부이치치는 여덟 살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상실감에 시달렸으나 부모의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수영과 스케이트 보드까지 타는 낙천적 인물로 성장했다. 그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다. 〈황금물고기·1만1천500원〉

▲관용-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웬디 브라운 교수가 똘레랑스로 표현되는'관용'이라는 가치의 탈정치적 효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관용'의 탈을 쓰고 '다문화 제국주의'로 흘러갔다고 지적한다. 〈갈무리·1만8천원〉

▲제중원 이야기=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김상태 교수가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과 관련, 조선 근대화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밀을 파헤쳤다. 하나의 국립병원이 탄생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조선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이 장면을 아시나요-김동규의 오페라 이야기 1, 2=오페라 가수 김동규가 영화 '쇼생크 탈출' 등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CF·드라마에서 들었던 오페라 음악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의 한 코너를 통해 2년여 동안 청취자에게 전한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일반인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생각을담는집·각권 1만8천500원〉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핸 010-8004-5900
(전복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형성
▶팬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융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팬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입박으로 팬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위 치◉
화순읍 전대병원만년산부근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보로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만연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좋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 입니다. 황토 흙벽돌 100평 사용하고 습도조절,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만성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영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정성들여 짓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최적합)
매매가 :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 250평 * 건평 :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문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 심야전기
* 조경 : 잔디, 소나무
* 건축 준공 :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인테리어 흙황토 벽돌, 흙황토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송
* 2층 방가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기목 시공)
◉주인직거래◉
꼭하실분만전화요망
☎011-634-4114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종목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 개강 : 3월 2일
- 현재 접수 中,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의정보고서
명함
대형현수막
간판/현판
배포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월 충전료 5,000원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자
유사업종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월 전기료 약 5,000원 정도로 경제적인 적용
• 휘발유 및 배터리는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품의 국산화로 안정적인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 충전시 40km운행(적재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믿음과 화합으로 번영하는 한라그룹
한라웰스텍(주) HALLA Welthtech Corp.
구입문의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